



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|--|---|---|--|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수도권매립지 종료 | | |
| | | | |  환경특별시 인천 | | |
| 배포일자 | | 2022년 4월 24일(일) 총 3매 | | | | |
| 담당 부서 | 도시경관건축과 | 담당자 | • 건축계획팀장 이양호 ☎440-4721 • 담당자 김동찬 ☎440-4722 | | | |
| 사진(이미지)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
다시 태어난 ‘빛의 항구’ 화수부두 ... 과거의 영화 되찾길

- 인천 동구 불거리 창출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견인 -
- 라이팅 쇼, 빔 프로젝션 매핑, 조명사인, 포토존 등 구성 -

인천광역시는 화수부두 주변 지역의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찬 부두로 거듭나기 위한 ‘빛의 항구’ 화수부두 주변 연출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.

화수부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곳으로서 70년대까지 수도권 제일의 새우 젓 전문 시장이었다. 연평, 백령 근해에서 잡은 생선의 집하부두로 유명했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어항이었으나, 최근에는 상권이동과 도심외곽 위주의 개발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작은 부두이기도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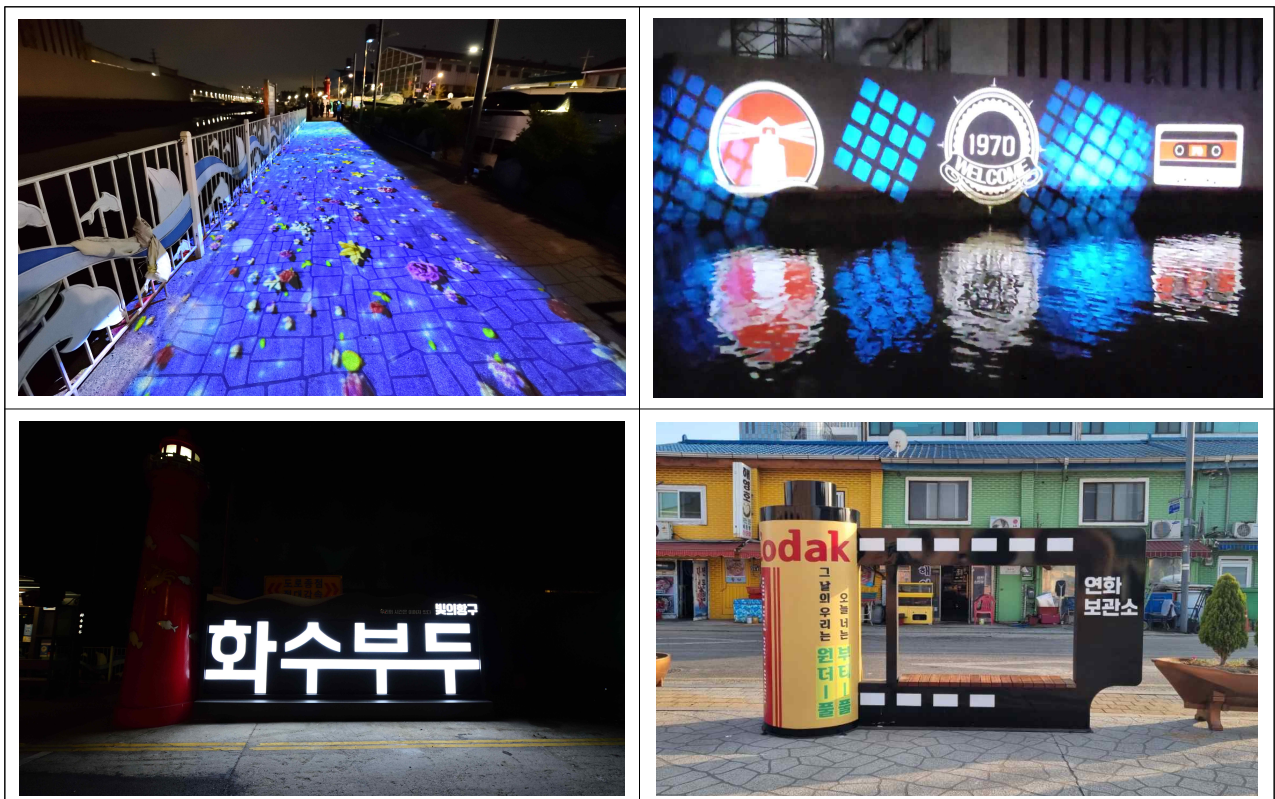
시는 ‘빛의 항구’ 화수부두 주변 연출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왔다. 동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부두 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리뉴얼(renewal) 하는 효과와 함께 동구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번 사업은 라이팅 쇼, 빔 프로젝션 매핑, 조명사인 및 포토존의 4가

지 경관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.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레트로(Retro)한 분위기의 야간경관 연출사업으로 어두운 화수부두 주변 환경을 밝게 개선해 활기찼던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의도가 담겼다.

야간경관 연출은 동구청에서 시설인수 후 정상운영을 시작하게 되며,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19시부터 23시까지,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.

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“정감어리고 옛 정취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화수부두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인천의 명물로서 재탄생했다”며 “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기찬 부두 환경 조성과 더불어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
【참고자료】

“빛의 항구”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 사업

동구 화수부두 주변을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야간경관 연출 사업

□ 용역개요

- (용역기간) 2021.11.23. ~ 2022. 04. 21
- (사 업 비) 484,450천원
- (용 역 사) (주)누리플랜, (주)팔레트온
- (사업내용) 라이팅 쇼, 빔프로젝션 매핑, 사인조명 및 포토존 설치

□ 그 동안의 추진사항

- 2021. 11. 23.: 계약 및 착수
- 2021. 12. 02.: 주민설명회 개최(화수부두 경로당)
- 2021. 12. 06.: 착수보고회 개최
- 2022. 04. 06.: 용역 콘텐츠 영상 시연 1차 현장검사
- 2022. 04. 14.: 용역 콘텐츠 영상 시연 2차 현장검사
- 2022. 04. 21.: 준공(준공계 접수)

□ 향후일정

- 2022. 04.: 동구청 인계인수
- 2022. 05.: 시설 운영

<시설운영계획>

- 하절기: 4월부터 10월까지 (19시 ~ 23시)
- 동절기: 11월부터 03월까지 (18시 ~ 22시)